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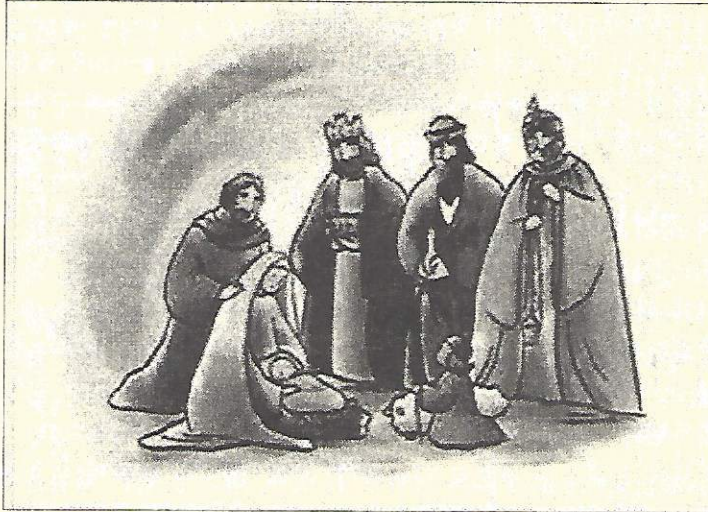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축일

제35권 6호(나해) 2015년 1월4일

[묵상]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구원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별

1. 보편성

멜키올 St.Melchior, 발다살 St.Balthassar, 가스팔 St.Caspar,
이들은 온 인류를 상징.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세상의 구세주로 모신다는 것.

2. 그리스도의 정체성

유향과 황금과 몰약.
유향 - 하느님께 드리는 향이요,
황금 - 세상의 임금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요,
몰약 - 죽은 이에게 바르는 방부제.

3. 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별이 되었다.
사람들이 '나'라는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라는 별을 보고 갔다가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새신

제3장

‘성령새신운동’의 빛과 그늘

1. ‘성령새신운동’의 빛

1) 하느님 현존 체험과 신앙 새신

성령새신운동을 통한 하느님의 현존 체험은 신앙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가능케 한다. 이 변화란 첫째, 하느님 말씀을 가깝게 대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신자들은 성령새신운동에 참여하면서 성경 읽기와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고, 성경 공부에 더 깊은 열망을 지니게 되었으며, 또 성경말씀을 살아 계신 하느님 말씀으로 체험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둘째, 성령새신운동을 통한 하느님 현존체험은 미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실제로 성령 기도회 회원들은 거의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하느님 현존 체험은 기도 생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성령새신운동 기도회에 자주 참석하는 이들은 기도에 맛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묵상하며, 자주 성체 조배를 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의 공식 기도 외에도 찬양 기도와 울동, 자유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일부 신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생동감 있는 기도의 새로운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다양한 은사를 통한 삶의 변화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의 건설과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배풀어졌다.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대로, 성령께서는 그 당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배풀어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식별의 은사, 신령한 언어의 은사,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등이 그것이다(1코린 12,4-11 참조). 성령새신운동의 참여자들은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면서, 그 은사의 중요성을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심령 기도의 은사, 구마를 포함한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해석의 은사 순으로 꼽았다. 한국 교회 내의 소외된 이들, 특히 내적으로 상처 입은 이들이 성령새신운동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다.

성령의 은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이다”(갈라 5,22-23). 오늘날 성령새신운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함께 그 은사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계속>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60,1-6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의 임금을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들,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들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3,2,3-5-6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제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동방의 세박사	102	143
봉헌	431	270	270
성체	또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282	309
파견	102	147	102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공현은 예수 성탄의 신비가 더욱 확대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두 축일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세기 경에 서방교회에서는 12월25일을 ‘태양신 탄생 축제’로 지내던 이교 풍습에 대항하여 진정한 빛은 그리스도라는 뜻에서 이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집트와 아라비아와 같은 동방 지역의 신자들은 1월6일에 예수님의 성탄과 공현을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동지가 지나 낮의 길이가 확실하게 길어진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이시고,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경축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방에서 지내던 주님 탄생과 공현 축일이 서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서방에서는 둘을 구분하여 경축하였습니다. 곧 12월25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고, 1월6일은 동방 박사들이 세상에 탄생하신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것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 때 사용되는 향료인 ‘유향’은 기도의 상징으로, 유향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표시이자 그분 수난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찾아낸 예수님을 뵈고 크게 기뻐하면서 최대의 정성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자 먼 길을 떠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곧 만백성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모두의 구세주이심을 뜻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구세주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진정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분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새해를 맞아 교우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써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선인장 같은

사막의 강한 태양과 오랜 건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인장 앞은 가시가 났다지.

날카로운 가시는 위협적이지만

그 속에 말캉한 물기가 대부분이라.

속에 품은 것이 그러하니

살아남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

유난히 날카로운 사람,

어쩌면 마음은 상상 못할 만큼 여릴지도 몰라.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채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채물봉헌자			토남 1,2반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
한 자선2차헌금 이 있습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 25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 2월2일(월)저녁7시30분(새벽미사없음)

- 일시 : 1월 11일 (주일) 1시
- 장소 : 성전
- 강사 : Dr. 최재영 요안나, 신경과 전문의(현 USC강사)

- **상담내용** : 정부복지혜택, 영어서류해석, 서류신청방법,
도움이 필요한분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 & 둘째주 7:30 미사후 : 강당
11:00 미사후 친교장
- **전화상담** :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 가격 : \$10, \$20, \$50
- 주문 : 카페방문, 전화, 이메일
- 수익금은 컴퓨터조성, 나눔실천, 성당건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이냐시오카페 ☎(323)731-4433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관
- 수강료 : \$50 (\$20/1일)
- 대상 : 신자및 일반인 모두환영
- 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

●1월11일(주일) * 토동1반 : 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 : 스왑 무수비(12학년)

교무금	강순복 김민석 서성용 윤선희 정정현 최상만	경철호 김성현 소성덕 이경태 주영석 최영신	구자운 김재희 송기철 이상곤 지경수 최원석	금동균 김현숙 오상준 이석진 차병용 한혁수	김 준 박진선 원건희 장수창 최길주 이크리스	김관기 박진수 유선식 정동호 최득순	합계:\$6,790
	주일미사 현금 : \$2,692 크리스마스 미사현금 : \$ 3,185						
성전헌금	경철호 김민석 유선식 정정현 최영신	구자운 김재희 윤선희 조소영 최원석	금동균 김현숙 이경태 지경수 한혁수	김 준 서성용 이상곤 이석진 최길주 최득순 이크리스	김관기 소성덕 이석진 정동호 최상만	김구혜 원건희 정동호 최상만	합계 : \$4,440
구유예물 : \$3,968						환불수입 : \$ 29.23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햇볕 한 줌] 아름다운 손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나이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린 동생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려고 어린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잘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과로가 겹쳐 소녀는 결국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몸이 워낙 쇠약해진 상태에서 걸린 병이라 소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마지막으로 성사를 집전하시기 위해 신부님께서 소녀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동생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그 동안 주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신부님의 눈길이 문득 그녀의 손에 멈추었습니다. 그 손은 도저히 어린 소녀의 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답니다. 과도한 일로 인해 손마디는 울퉁불퉁 불거져 있었고 손 여기저기에 찢긴 상처들이 나 있었답니다. 신부님은 소녀의 두 손을 감싸 쥐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애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시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이 두 손을 하느님 앞에 내어 보이거라. 이 아름다운 손만을...”

소녀는 예수님께 자신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자신의 삶의 무게와 고통, 희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된 손을 바쳤습니다. 그 손이 그 소녀에게 있어서 황금이요, 유향이며, 몰약일 것입니다.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옥찬 수산나 991-4838 1 / 18(일) 오후1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1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6(금) 오후7시30분 성당 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동수 베드로 218-7340 1/10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김인성 스테파노 991-8558 1/10(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윤선희 로사 710-8416 2/17(토)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장용 임마누엘 625-3312 1 / 23(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 / 9(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 / 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424)232-8522 12/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1/10-1/11 팜스프링 온천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이 리비나213-700-6983 1 / 16(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 명 베드로 974-2211 1 / 10 (토) 오후4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 / 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오후1시

새해 세 다짐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소망, 건강, 안녕, 평화들이 실현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생활 속에 복음적 가치관이 묻어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올미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엔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순간이며, 그 안에 삶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자각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바쁜 삶에서 벗어나 올해는 더욱더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 경제, 가정, 사회생활 등과 지성 및 영성이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룬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일에 사려 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성공한 사람으로, 또한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위하듯 이웃을 위할 줄 알며, 정의와 의리를 생각할 줄 알고 남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복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마음의 양식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습관화해 보려 합니다. 가난한 이들, 굶주리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 소외되고 멸시 받는 이들, 죄인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살피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루카12, 15)는 말씀처럼 재물, 권력, 공명심, 이기심, 독선, 물질만능주의, 쾌락과 현실생활에의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비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약자들을 도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에 몰들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밑알이 되고 싶다는 평소의 꿈을 실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때문에’보다는 ‘...덕분에’ 문화가 교회 내에 뿌리내리고 어려운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을 탓하거나 작은 일에 흔들리기보다는 ‘할 수 있다’, ‘나아질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 김해권 프란치스코 / 교구 평협 고문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다

저와 영화를 같이한 류승룡 씨는 나이 마흔이 넘어서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난타의 공연배우로서 활동하였고, 난타를 그만두고 연극과 영화 일을 하면서도 영화 관계자들에게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주목 받는 배우로 위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그도 결혼하였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살아야 하는 어깨 무거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고, 연기자로서의 미래도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의에 빠진 그는 대학(연극과) 은사님을 찾아가서 “이젠 연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연기자로서의 꿈을 꾸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이제 그만 다른 일을 해볼까 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곰곰이 듣던 은사님은 류승룡 씨가 연기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야, 이놈아 모든 꽃이 봄에만 피는 줄 아니? 어떤 꽃은 여름에, 또 어떤 꽃은 가을에, 그리고 매화 같은 꽃은 그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류승룡 씨는 대한민국 영화계에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배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마 그가 겨울에 핀 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제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가슴속에 영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례 받고 성당을 다니고는 있지만, 무늬만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라리 신자들을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진심을 다해 내가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완벽하다고 느낄 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류승룡 씨 은사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어떤 형제는 좀 일찍 꽃이 피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매님들은 여름에 꽃이 피어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 주님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꽃을 피워 주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다 아마 주님은 저에게 아무 의심도 없는 가장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꽃 언젠가 저에게도 꼭 피게 해달라고...

◆ 원동연 제네시오/ 리얼라이즈픽처스(주) 대표